

'92년도 사료산업 전망

홍 순 칸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개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축산업 및 사료산업은 전면적인 농축산물수입개방과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미비 등을 이유로 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배합사료산업은 축산업에 대하여 중간소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으로서 축산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축산물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1차상품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외국의 축산물수입개방과 정부의 조절기능 미비 등과 맞물려 축산과동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배합사료산업의 불안정요인이 되고있다.

그동안 농업 또는 축산업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오던 사료산업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68년 축산진흥4개년계획과 '77~'78년의 사료제조시설 근대화추진으로 명실공히 산업의 한부분으로 성장의 도약을 맞이하면서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따른 축산물소비 증가에 힘입어 발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제1차 석유파동을 겪은 '80년 전년대비 10.8%의

물량감소를 제외하고는 '80년대에 들어서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실현하면서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8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축산물의 수입개방과 함께 정부의 축산지원정책이 미봉책으로 그치는 등 한계를 들어내면서 우리나라의 축산업자체에 대한 회의와 함께 과연 배합사료산업이 성장산업으로 간주되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합사료 수요는 축산물의 가격변화에 대한 가축사육두수의 증감과 이에따른 배합사료생산의 증가 또는 감소사이클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육류소비수준을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류소비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써 소득증가에 따라 육류소비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따라 배합사료수요 역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된다. '8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국민1인당 육류소비량은 18.4kg으로 이는 미국의 105.4kg, 대만 57.1kg, 일본의 38.4kg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나, '90년 6월 농림수산부가 발

표한 “축산장기발전대책”에 의하면 2001년의 우리나라 1인당 육류소비량이 32.0kg으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연 4~5%정도의 육류소비증가가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생산 역시 연 6~7%의 성장이 예견되기는 하지만 이외의 여러가지 악재로 인하여 장래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

축산업 및 배합사료산업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 중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는 축산물의 수입개방 문제로서 향후 '97년까지는 전 품목의 축산물을 개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축산물의 수입개방은 축산물이 배합사료로 대체되어 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양축농민의 가축사육심리를 위축시키게 되어 축산업 및 배합사료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 환경문제로서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정화시설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축사육농가 및 사육두수의 증가가 억제되고, 일부 사료용 원료가 수입자유화되면서 대단위농장 등에서의 사료원료 직구매를 통한 자가배합사료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합사료가 이미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수입배합사료의 범람과 농가의 경중부문 채산성 악화로 그 재배면적이 사료작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조사료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배합사료생산은 둔화되리란 전망도 가능하다.

☐ 배합사료 수급동향 및 전망

전술한 바와같이 배합사료산업은 축산업의 소재산업으로 따로 분리해 생략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축산업성장을 후

광으로 실로 괄목 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같은 배합사료산업의 급속한 성장배경에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정부의 축산진흥시책에도 기인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경제성장보다는 배합사료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60년대 태동기를 거치면서 '79년까지 급속한 성장을 보여 오던 사료산업은 '80년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10.8%의 마이너스성장을 보였고, 연이어 '81년에도 0.8%의 물량증가에 머물러 '80년대들어 최대의 부진을 실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89년에는 배합사료 생산량이 1,000만톤을 넘어서면서 전년대비 6.5%의 증가를 보이는 등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90년에 들어서는 UR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이 10,426천톤으로 전년 대비 0.2%의 성장은 보여 또 한차례의 한계를 보였다. '90년의 이같은 정체현상은 과거의 배합사료 생산증가 또는 감소와 같은 조정국면과는 다른요인들로 분석되어 업계에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나 '91년에 들어서는 그 회복세가 빨라 '91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0%에 가까운 물량증가를 실현하였고 이러한 물량증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져 전년대비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료협회가 잠정집계한 '91년 우리나라 배합사료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한(육)우용이 15.1%증가한 1,918천톤, 낙농용이 4.1%증가한 1,864천톤, 양돈용이 9.5%증가한 3,887천톤, 양계용이 10%증가한 3,601천톤, 기타용이 45.8%증가한 210천톤으로 총 11,480천톤으로 10.1%의 물량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90년 총 배합사료 생산량이 10,426천톤으로 전년대비 0.2%증가한데 비해 성장이 급격히 호전된 것으로서 이같은 성장의 배경에도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와 함께 '90년도 하반기 이후 '91년상반기 중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안정으로 인한 국내배합사료가격의 안정과 UR 등으로 극히 움추려 있던 축산 및 사료업계의 일시적 반동현상 또는 부작용해소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 요인을 감안 할 때에는 '92년에도 이같은 고율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단기적인 요인으로서 배합사료생산의 가장 커다란 변수는 가축사육두수의 변화이겠으나 이 밖에 배합사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들 역시 배합사료생산에 작용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91년 가축사육두수를 한(육)우가 1,787천두, 젓소가 502천두, 돼지가 5,027천두, 닭을 80,763천수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9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사육마리수가 증가한 것이며, '92년에도 한(육)우 5.4%, 젓소 5.2%, 돼지 18.0%, 닭 8.0%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92년 배합사료 생산증가를 예견케 하고있다.

1992년도 배합사료 수요측정과 관련하여 한국사료협회가 학계의 협조를 얻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과 축산물소비의 상관회귀계수 분석방법”과 “생산추세분석방법” 그리고 “전문가 의견청취방법(Delphi Method)”을 통해 추정한 결과 11,745천톤(1안), 11,901천톤(2안), 11,856천톤(3안)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결과는 과거의 고도성장 추세를 감안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축산 및 사료의 내적요인만을 본다면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과 또 축산물소비와 소득증가에 따른 상관계수가 정(正)의 관계를 지니고는 있으나 소득증가에 따라 반드시 정비례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 등을 지니고 있는 등 정확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생산증가가 과거의 10%를 상회하는 고율성장추세와는 달리 둔화되리란 점에 있어서는 계량적인 분석결과와 업계전문가들의 의

견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92년배합사료산업이 둔화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전술한바 대로 선진국에 비해 축산물소비의 상대적증가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축산업자체를 내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배합사료 가격전망

배합사료가격은 '90년말 일부 사료공장에서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과 양축농가의 생산비 증가 등을 이유로 '91년초 인상전으로 환원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배합사료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국제 사료곡물가격이 하반기 이후 강세로 전환되면서 내부적인 환차손 발생과 원료 및 제품의 수송비의 급등과 함께 최근들어 서의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임금, 제반부대의 상승등으로 인해 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91년 중 사료업계는 상반기 이후 누적되어온 이같은 원가상승요인을 원료의 안정적확보와 배합사료 생산증가에 따른 매출액신장으로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었으나 더이상은 감내할 여력이 없어서인지 '91년하반기부터 배합사료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표1. 가축사육전망

단위:천두,수

구분	한(육)우	젓소	돼지	닭
'91(추정)	1,787	502	5,027	80,763
'92(전망)	1,883	528	5,930	87,240

이같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된 데에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환율변동과 기후불순 및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원료가격상승요인 외에도 내부적요인으로는 산업을 지탱하는 기간산업에

표2.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동향

단위: 천톤

구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타용	계	전년대비 증가율
'80	1,872	769	514	306	1	3,462	-
'81	1,842	761	471	415	2	3,491	0.8
'82	1,980	1,151	592	693	4	4,420	26.6
'83	2,246	2,103	710	871	12	5,852	32.4
'84	2,065	1,987	853	1,072	8	5,985	2.3
'85	2,310	1,924	994	1,209	14	6,451	7.8
'86	2,639	2,178	1,209	1,624	25	7,675	19.0
'87	2,933	2,953	1,404	1,674	54	9,018	17.5
'88	2,947	3,604	1,608	1,512	96	9,767	8.3
'89	2,923	4,071	1,719	1,561	129	10,403	6.5
'90	3,274	3,551	1,790	1,667	144	10,426	0.2
'91(잠정)	3,601	3,887	1,864	1,918	210	11,480	10.1
전년대비 증가율(%)	10.1	9.5	4.1	15.1	45.8	10.1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곡물보고서에 따르면 '91/92년도 세계 총 곡물수급은 생산이 전년대비 4.8%, 기말재고 역시 5.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료용 곡물의 경우도 생산은 지난 10년간의 생산과 비교할때 평년 작수준이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3.9%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기말재고량은 지난 10년간과 비교할때 최하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료곡물가격의 안정을 기대하기란 극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와함께 금년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주고있는 엘니뇨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곡물의 감소가 예상되고, 현재 산용공여에 의한 소련의 판매할당 및 구매행위가 호전될 경우 가격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주요원료별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2~3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오던 옥수수 가격

표3. '92년 배합사료 생산량 추정

고려측면	수요량 천 M/T	산출근거
(1안) 경제 및 축산관련 지표의 회귀분석	1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 축산물소비의 상관회귀계수 0.3611 •'92년 축산물수요증가 예상율 7.0% × 0.3611 = 2.2577 ('92경제성장율 × 상관회귀계수) •'92년 배합사료 수요량 11,455천M/T × 1.02258 = 11,745천M/T
(2안) 생산추세	11,901	•1975~1991년 17개연간 생산량 자료로 추세분석
(3안) 회원사 의견청취	11,8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회원사 의견청취 '91년 생산추정량(11,455천M/T) 대비 3.5% 증가예상
평균	11,834	•전년대비; 3.4% 증가예상

이 지난해 상반기 까지만 하더라도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미국 콘벨트의 고온건조기후와 수

표4. 주요원료 가격동향

	옥수수 중국산	소맥 E C	혼합 E C	소맥피 캐나다산	대두박 미국산	대두박 중국산	제종박 캐나다
1월	122. ²	98. ⁵	90. ⁰	114. ⁵	222. ⁴	195. ⁰	163. ⁵
2월	125. ⁷	99. ⁷	90. ⁵	109. ⁵	226. ⁵	193. ⁷	167. ⁵
3월	127. ²	113. ⁰	95. ⁰	111. ⁵	228. ⁷	193. ⁰	163. ²
4월	128. ⁴	114. ⁶	95. ²	114. ⁴	230. ⁷	187. ⁰	164. ⁰
5월	127. ⁰	108. ⁰	91. ⁷	113. ⁰	226. ⁸	186. ⁰	163. ⁵
6월	126. ⁷	97. ⁰	-	113. ⁰	229. ²	191. ⁵	157. ⁷
7월	126. ⁶	97. ⁰	-	111. ⁴	222. ⁸	192. ⁸	149. ⁸
8월	127. ⁵	101. ³	-	112. ³	235. ⁸	198. ⁰	151. ⁰
9월	128. ⁵	113. ⁴	-	113. ⁴	265. ⁹	220. ⁰	161. ²
10월	131. ⁵	122. ⁵	-	113. ⁰	255. ⁷	228. ⁰	155. ⁵
11월	130. ⁸	127. ⁰	-	114. ⁵	250. ⁸³	227. ⁵	149. ²
12월	127. ⁷⁵	129. ⁵	105. ⁷	113. ⁰	236. ⁶²	225. ⁰	146. ⁰

급불안정을 원인으로 최근들어 140불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지난해 사료가격안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해 오던 사료용 소맥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30\$ 이상 급등했다. 사료용 소맥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사료업체는 대체곡물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료용 대맥 이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수년간 값싼 원료시장으로 인식되어오던 중국이 '91년 여름 대홍수를 맞아 생산감소와 함께 내륙수송수단이 채 복구되지 않아 수출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가격의 강세를 보임과 아울러 지난해 계약된 대두박 중 일부 물량은 공급이 이행되지 못했는가하면 금년도 수출물량도 30여만톤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두박 역시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강세현상이 예상되어 사료용수수 가격에 관심이 모아지고는 있으나 현재 C&F 118.⁰⁰불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아직 옥수수나 소맥을 대체하기에는 높은 가격이다.

대부분의 수입원료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동안 잠잠했던 국산원료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옥구르텐, 우지, 구르텐휘드, 동물약품, 석회석 등의 가격상승이 있었고 어분의 경우에는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수입원료의 경우 최근 외화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원화가치를 절하시킴으로서 수출기업은 유리해지는 반면 대부분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업체는 수입가격 상승부담을 안게됐다. 이같은 환차손의 발생은 옥수수, 수수, 소맥등어는 특정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전품목에 걸쳐 작용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년초 1불당 715원이었던 환율이 이미 760원을 넘어섬에 따라 6% 가까이 절하되었고 이같은 추세는 '92년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환차손의 발생은 배합사료원가 중 원료비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고 이중 수입원료 구성비가 65~7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료가격상승과 함께 환차손의 발생은 곧바로 배합사료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표5. 연도별 세계의 곡물수급 현황

단위: 백만톤

구분	총 곡물			사료곡물		
	생산	기말재고	교역량	생산	기말재고	교역량
81/82	1,498. ⁵	308. ⁵	1,477. ⁷	767. ³	150. ⁸	97. ⁸
82/83	1,549. ⁸	356. ⁶	1,501. ⁶	784. ⁹	181. ⁹	90. ⁰
83/84	1,486. ⁴	304. ²	1,538. ⁸	688. ⁵	110. ⁷	93. ⁴
84/85	1,649. ⁸	365. ²	1,588. ³	816. ⁶	143. ⁹	100. ⁴
85/86	1,664. ¹	433. ³	1,596. ¹	844. ⁰	208. ²	83. ²
86/87	1,683. ¹	463. ¹	1,653. ³	833. ⁰	234. ⁰	83. ⁷
87/88	1,612. ¹	408. ¹	1,667. ¹	795. ²	213. ⁶	82. ⁵
88/89	1,563. ⁶	315. ⁵	1,656. ¹	731. ³	149. ³	94. ²
89/90	1,685. ⁰	300. ²	1,700. ⁴	802. ⁶	123. ⁹	100. ⁰
90/91	1,779. ⁶	337. ³	1,742. ⁴	834. ⁰	135. ³	84. ⁸
91/92	1,694. ⁶	319. ⁰	1,712. ⁹	801. ⁵	128. ¹	83. ²

원료비의 상승, 환차손발생과 함께 물류비용의 상승 역시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은 수송비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92년 사료원료 운송과 관련해 운송관련업체에서는 70~100%의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계약이 끝난 사료공장의 경우 70%이상의 수송비 인상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같은 수송문제는 원료 뿐 만아니라 제품수송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여 사료업계는 이중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항만시설이 여의치 못하여 항구에 바로 접안시키지 못하고 하역을 위해 항계 밖에서 대기하는 배들이 늘어나면서 체선료 역시 사료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로, 항만에 대한 정부의 시기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부담마저도 배합사료업체가 떠안게 되어 결국 배합사료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축산물 생산비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이 사료비라는 점을 감안할때 국내 축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료업계는 물론 축산업계로 삼고현상으로 일컬어 지는 원료 가격상승, 환차손발생, 물류비용의 상승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비책 강구가 시급하며 정부정책 차원에서도 확고한 정책의지가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계**

